

check ME up!

2026년 9월 1주차

리서치본부 투자전략팀

조병현 투자전략 | bhcho@daol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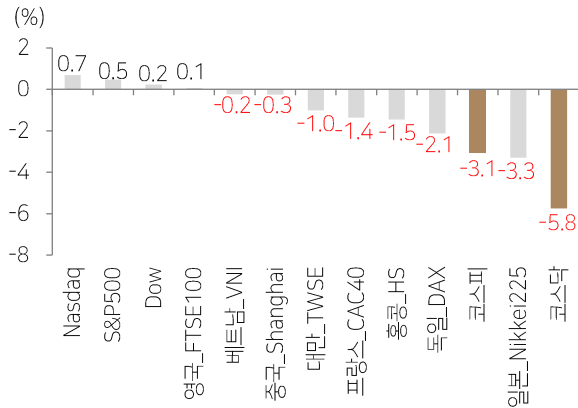
홍록은 투자전략 RA | hongre@daolfn.com



I . Weekly Review	2p
II . 경제지표 Preview	3p
III. 이벤트 일정 & 증시 동향 및 전망	4p
IV. Key Chart & 핵심지표	5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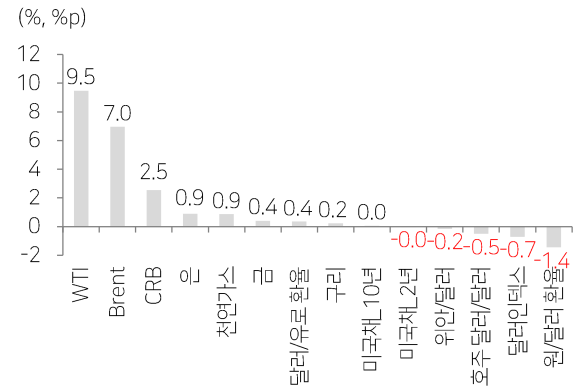
I. Weekly Review

글로벌 증시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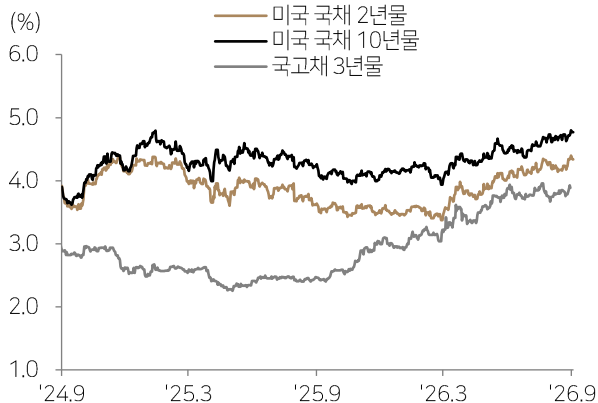
Note: 수익률은 8/28일 대비 9/3일 종가 기준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글로벌 FICC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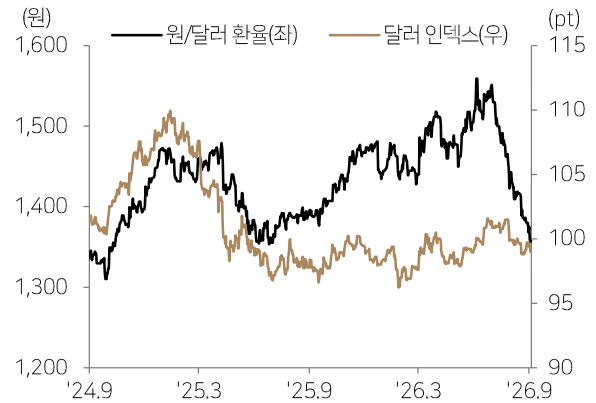
Note: 수익률은 8/28일 대비 9/3일 종가 기준. 미국 국채는 %p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채권 수익률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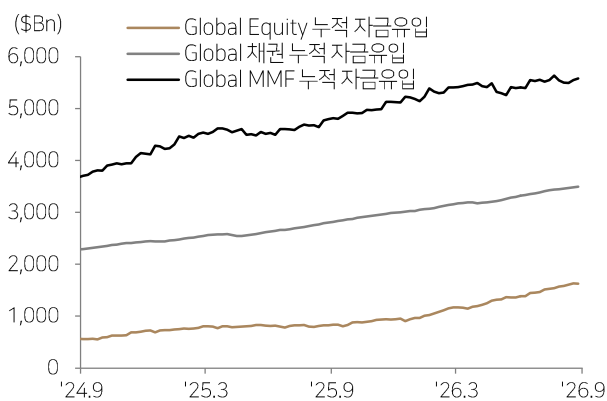
Source: Bloomberg, 연합인포맥스, 다올투자증권

달러 인덱스 및 원/달러 환율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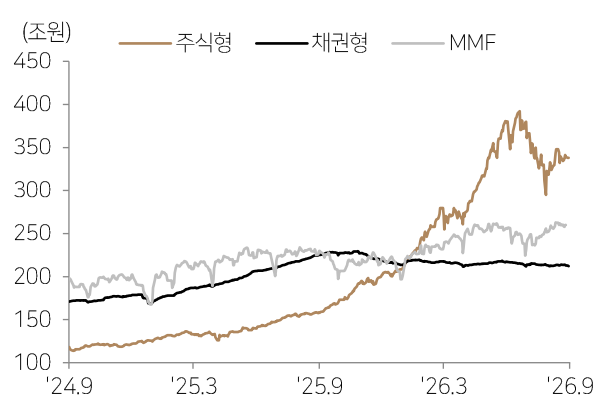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글로벌 펀드 플로우



Source: Refinitiv, 다올투자증권

국내 자금동향



Source: Check Expert, 다올투자증권

II. 경제지표 Preview

- 8월 말 잭슨홀 미팅에서 케빈 워시 연준의장은, 별다른 코멘트가 없을 것이라는 사전 예상과 달리 2% 물가 목표 및 정책 목표 상 인플레이션을 언급. 이로 인해 9월 금리 인상 우려를 시장이 추가로 반영하기 시작. 워시 의장의 코멘트는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금리 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 표명으로 볼 수 있으나, 다음 주 발표되는 인플레이션 지표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진 것은 불가피한 상황. 일단 유가 측면에서는 8월도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MoM 기준이나 YoY 기준 모두 전월보다 부담이 있는 상황
- 실제 인플레이션 지표 외에,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들도 확인이 필요. 지난 달 유가 반등에도 불구하고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들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던 상황. 그러나 최근까지 유가 부담이 이어지고 있어 반등 여부에 주목

일자	국가/지역	일정 및 이벤트	단위	예상치	이전치
2026-09-08	한국	2분기(잠정) GDP	%yoy	3.7	3.7
2026-09-08	미국	8월 NFIB 중소기업 낙관지수	Index	99.2	99.8
2026-09-09	미국	8월 뉴욕 연준 1년 기대인플레이션	%	-	3.63
2026-09-09	한국	8월 실업률	%	-	2.8
2026-09-09	중국	8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3.7	3.5
2026-09-09	중국	8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0.9	0.5
2026-09-10	미국	8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5.2	4.7
2026-09-11	일본	8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7.4	7.2
2026-09-11	한국	9월 수출 10일간	%yoy	-	45.3
2026-09-11	미국	8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3.4	3.4
2026-09-11	미국	9월(잠정)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Index	51.0	51.7
2026-09-11	미국	9월(잠정) 미시간대 1년 기대인플레이션	%	-	4.0
2026-09-11	미국	9월(잠정) 미시간대 5~10년 기대인플레이션	%	-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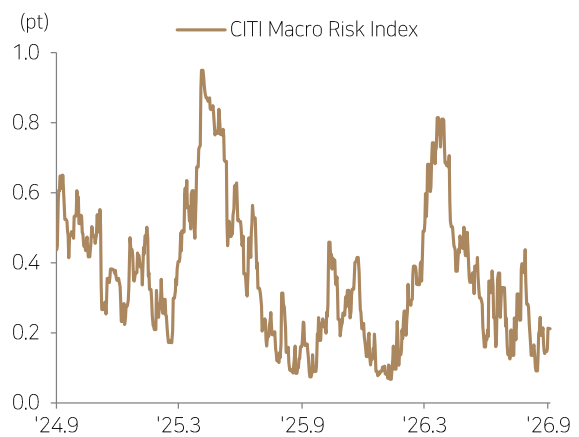
Note: 경제지표 발표일정은 한국시간 기준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경제 서프라이즈 인덱스 흐름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 흐름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III. 이벤트 일정 & 증시 동향 및 전망

일자	국가/지역	중요도	일정 및 이벤트	내용
9/9 ~10	유로존	상	ECB 통화정책회의	6월 정책금리를 인상했던 ECB는 7월 회의에서 동결 결정. 결정은 동결이었으나, 회의 당시 라가르드 총재는 미국-이란 분쟁 시작 이후 에너지 가격 상승과 식품, 상품, 서비스 물가 파급(2차 효과)으로 2027년 상반기까지 물가상승률이 목표치를 상회할 것이라며 매파적 경계감을 표명. 내부적으로는 일부 위원들의 금리 인상 의견도 출회되었으며, 라가르드 ECB 총재 역시 9월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둘 것이라고 밝힌 상태 8월에도 중동 상황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다, 겨울철을 앞두고 가스비 이슈가 다시 제기 중. 월 초 발표된 8월 CPI도 3.3%로 반등. 다시 3%대 물가 진입이 확인된 만큼 금리 인상 가능성에 유의
9/10	한국	상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3·6·9·12월 둘째 주 목요일에 도래하는 코스피200 선물·옵션 동시만기일(네 마녀의 날). 만기일에 근접할수록 선물·옵션 포지션을 청산 과정에서 차익거래 청산 물량이 출회될 수 있어 단기 변동성에 유의. 특히 6~7월 큰 변동성을 보였던 반도체 대형주 중심의 코스피 수급 변동 경계 필요. 현재로서는 미결제 약정 등이 바닥권에 있어 극단적인 매물 부담으로 보긴 어려운 상태

Note: 이벤트 발표일정은 한국 시간 기준

Source: 다올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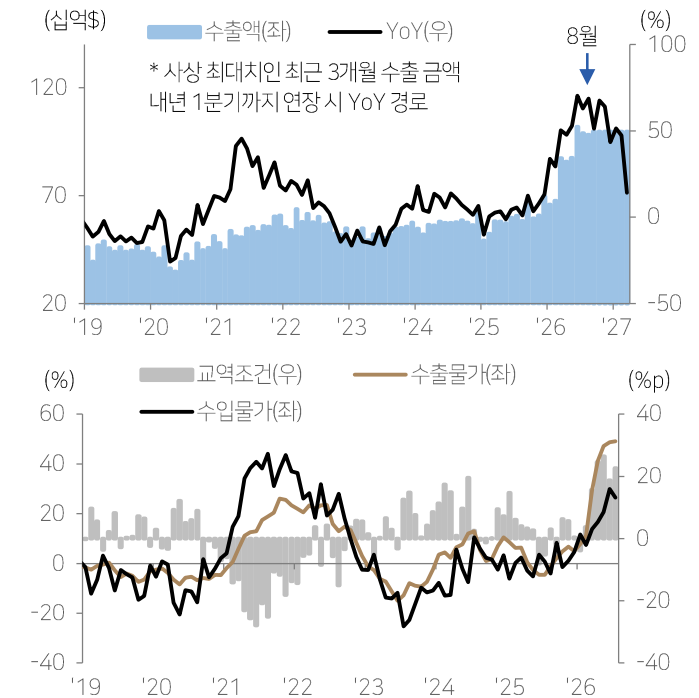
일자	내용
금주 (08/28~09/03) 증시 동향	- KOSPI(-3.1%), KOSDAQ(-5.8%) 하락. KOSPI는 은행(+3.3%), 철강(+1.2%), 보험(+1.1%)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기계(-9.8%), 비철,목재등(-9.1%), 화장품,의류,완구(-7.0%) 업종 하락. 케빈 워시 잭슨홀 매파적 발언에도 자사주 매입 효과에 코스피는 상승 출발, 8월 수출이 호조를 보인 점도 증시 상승을 지지. 그러나 주중 미·이란 교전 격화, 유가 및 국채금리 급등하며 코스피 급락. 이후 미 고용 부진과 주요 인사들의 완화적 발언에 국채금리 상승세가 일단 진정되며 저가매수 유입됐으나, 여전히 높은 금리 수준과 중동 불확실성에 변동성 장세가 지속됨 - DOW(+0.2%), S&P500(+0.5%), NASDAQ(+0.7%) 상승. 케빈 워시 매파적 발언에 국채금리가 상승 하자 하락 출발. 이후 미·이란 교전 격화에 유가·장기금리 상승세 지속, 9월 금리 인상 우려까지 부각되며 증시 부담 확대되는 양상. 이후 부진한 민간고용 및 주요 인사들의 비둘기파적 발언에 국채금리 급등세가 진정, 저가매수 유입되며 반등 마감
차주 (09/07~09/11) 증시 전망	- 시장 상황 판단에 대한 큰 변화는 없음. 아직까지 관성적으로 시장 이익 전망치의 완만한 상향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정체 구간으로 볼 필요. 금리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국 국채를 중심으로 선진국 국채 금리의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 이익 측면에서도, 멀티플 측면에서도 추세적인 흐름 보다는 박스권 형태의 횡보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지난 주 잭슨홀 미팅 이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민감도가 상향된 상태에서 다음 주 미국 물가지표 발표가 있다는 점도 관망세의 근거가 될 수 있을 듯. 8월 이후 형성되고 있는 약 6,200~7,000pt 수준의 박스권 내 등락이 연장될 것으로 판단 - 수급 측면에서의 주도세력 부재도 눈에 띄는 상황. 이번 주 중 3거래일에서 자사주 매입을 제외한 전 수급 주체의 순매도가 기록. 개인들의 투자심리 위축과 예탁금 감소 상황인 만큼 초기 상승 국면은 외국인 수급의 전환이 필요해 보이나, 현/선물 시장 모두 의미 있는 매수 전환을 찾아보기 어려움. 추세적 흐름을 기대하기 힘든 만큼 적극적으로 익스포저를 확대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되나, 지수 저점 대에서 반도체 관심 제고는 가능. 고금리 완화 강세 상황 감안 시 증권 제외 금융업종이 방어적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음

Note: 수익률은 전주 금요일 종가 대비 금주 목요일 종가 기준

Source: 다올투자증권

IV. Key Chart & 핵심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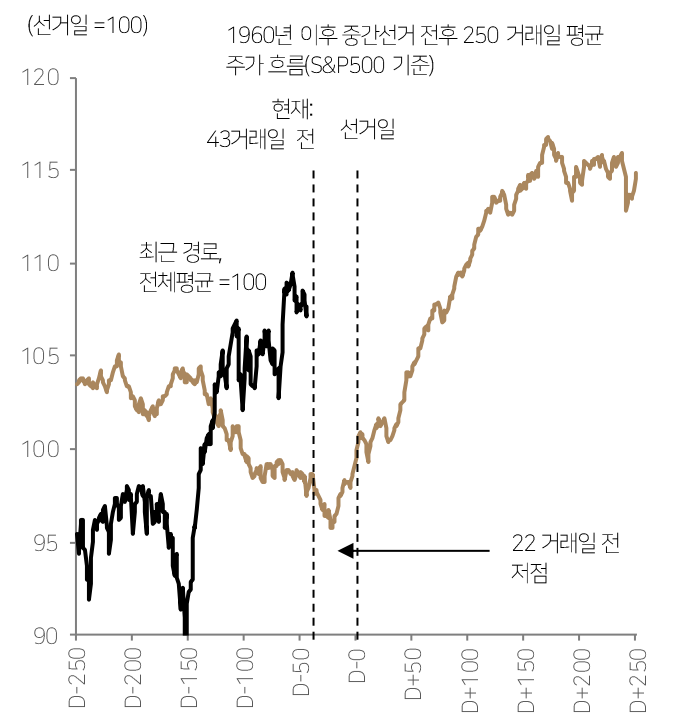
8월에도 강한 수출 모멘텀 재확인, 그러나 9월 이후는 모멘텀 둔화도 고려할 필요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 지난 해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상승 구간을 형성했던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펀더멘털 측면에서 든든한 버팀목. 8월에도 수출은 982.5억\$ 전년 비 +68% 증가하며 견조함을 재확인
- 그러나 증가율 측면에서 보면, 향후 기저효과에 대한 부담이 생길 수 있음. HBM에만 집중되어 있던 관심이 지난해 3분기부터 레거시 영역으로 확산됐고, 9월부터 실제 수출 금액에도 가시적 영향을 미침. 사상 최고치 수준을 이어가고 있는 최근 3개월 금액이 내년 1분기까지 유지된다 해도 증가율은 정점을 통과하는 흐름일 수 있음
- 한편, 채산성 측면에서도 다소 부담스러운 모습이 등장. 최근 한국 수출은 물량보다 가격 효과가 컸고, 수출 가격과 수입 가격의 차이는 교역조건이라고 하며, 한국 수출의 채산성을 의미하는 지표. 최근 수출 가격의 증가율이 정점 부근에 도달한 모습이 나타나며, 교역조건도 둔화 조짐이 나타남. 당장 이익의 하향 조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추가 상향은 신중해질 수 있는 배경

미국 중간선거 전후 경험적인 증시 흐름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 이벤트를 앞두고 과거의 경험적 흐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음. 특히 선거 등 정치/경제의 큰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는 시기에 따른 심리의 변화가 공통적 움직임을 만들어 낼 개연성도 상정 가능
- 오는 11월 3일에는 미국 중간선거가 있음. 중간선거를 위해 트럼프가 5월 이후로는 인플레이션 통제 및 갈등 봉합을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여전히 예측 불가 국면 연장 중. 사실 과거(1960년 이후) 경험을 보더라도 중간선거 전 증시는 불확실성을 반영하며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경향이 존재
- 선거 전후 주가 추이를 보면,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던 증시는 선거 약 22거래일 전 번복점을 형성. 선거 이후 회복 추세를 이어가는 평균적인 경향. 선거 직전 정책 기대감, 선거 이후 불확실성 완화라는 직관을 붙여 볼 수 있음. 사실 올해 증시 경로와 과거 경험적 평균이 크게 다른 상황인 만큼 같은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가 크지 않지만,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나 재무부가 인플레이션과 금리 부담을 진정시키는 노력을 제고할 기대를 가져볼 여지는 있음

www.daolfn.com

본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여의도 포스트타워

본사영업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여의도 포스트타워 27층

DAOL 다올투자증권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나, 제공되는 정보의 완전성이나 정확성을 당사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투자의사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하시기 바라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어떠한 법적 분쟁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배포, 복제, 인용, 변형할 수 없습니다.